

-한국(韓國) 고고학(考古學)의 성과(成果)과 과제(課題)-

金 元 龍

〈文化財委員〉

이번에 제가 정년퇴임을 맞아 제자들 덕분에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오늘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을 오시게 하여 죄송하고 또 고마운 마음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초대 국립박물관장(國立博物館長)이고 우리 고고학계의 최장로이신 김재원(金載元)박사께서 몸소 나와 주신데 대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논문집에 좋은 글을 써 주신 여러분들과, 정이 넘치는 글을 써 주신 전해중(全海宗)선생, 진홍섭(秦弘燮)선생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강연을 끝으로 서울대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인사를 대신하여 고고학계의 많은 성과 중 세가지만 추려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초대 국립박물관장(國立博物館長)이시던 김재원(金載元)박사의 도움으로 국립박물관원(國立博物館員)이 되었던 1947년 2월부터 지금까지 꼭 40년간 고고학, 미술사 두 분야를 공부해 왔는데 그 당시에 비하면 이 두 분야는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미술사 분야는 제외하겠습니다만 미술사 분야만 해도 당시에 비해 다사제제(多士濟濟)하고 장족의 발전을 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만 보아도, 건축의 김정기(金正基), 김동현(金東賢), 신영훈(申榮勳)선생, 회화의 안휘준(安輝濬), 이성미(李成美), 조선미(趙善美), 허영환(許英桓)교수, 서양 회화에 김영나(金英那)교수, 조각에 문명대(文明大), 김리나(金理那)교수, 강우방(姜友邦)학예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예, 특히 도자사(陶磁史)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정양모(鄭良謀), 윤용이(尹龍二), 강경숙(姜敬淑), 김영원(金英媛) 등 여러분은 직접 요지(窯址)를 찾아다니며 중요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 오셨고 또 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인데 이것은 그것들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소 관심을 가져 왔고, 다시 태어나면 꼭 연구해 보고 싶은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의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개시(開始)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인 학자들은 한국에 구석기문화(舊石器文化)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왔지만, 현재는 각지에서 많은 구석기유적(舊石器遺蹟)이 발견되었고 전기(前期), 중기(中期), 후기(後期)의 문화(文化)들이 파악(把握)되어 이제는 구석기(舊石器)의 다음 문화기인 중석기문화(中石器文化)의 존재에 대해 거론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손보기(孫寶基)교수가 발굴하였던 공주(公州) 석장리(石壯里) 유적의 최상층의 micro-blade를 포함하는 석기(石器)들을 손(孫)교수는 중석기(中石器)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와 동아대학교(東亞大學校)가 함께 발굴한 통영군(統營郡) 상노대도(上老大島)의 신석기층(新石器層)의 아래층(層)에서는 석기(石器)만이 출토되는데, 그 석기(石器)들에 대해서 김동호(金東鎬)교수와 손보기(孫寶基)교수는 중석기유물(中石器遺物)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노대도(上老大島)의 최하층에서 출토되는 석기 중에는 유럽의 따르드느아 침두기(Tardenosian point)와 같은 삼각형의 석기가 출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석기의 형태에만 의존하여서는 안되며 앞으로 Mas d'Azil유적과 같이 구석기(舊石器) 신석기문화(新石器文化)가 층위적(層位的)으로 퇴적(堆積)하고 있는 유적이 발견되어야 하겠지만 상노대도(上老大島)의 경우 후기구석기(後期舊石器)의 전통이 남은 석기들이 출토되는 무토기층(無土器層)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굴된 전남

(全南) 승주군(昇州郡) 송광면(松廣面) 우산리(牛山里) 유적은 충북대학교(忠北大學校)의 이릉조(李隆助) 교수가 지석묘(支石墓)를 발굴하던 중 발견한 것인데, 이(李)교수에 의하면 약 7,000평(坪)면적의 중석기 문화(中石器文化)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은 큰 중요한 갖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 구석기시대의 주민이 거주했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1만년전 구석기시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평균온도가 상승해서 주식(主食)인 동물군(郡)이 북상하게 되자 그를 쫓아서 주민도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한반도에는 주민이 모두 북(北)으로 이동하여 4~5,000년간의 공백기가 있다가 서기전 3~4,000년경 고(古)아시아족(族), 또는 고(古)시베리아족(族)이 내려와서 신석기문화(新石器文化)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중석기문화(中石器文化)의 존재가 확인되어 구석기(舊石器)의 하한년대(下限年代)가 내려오고 중석기문화(中石器文化)와 신석기문화(新石器文化)가 직접 연결되면 우리민족의 역사는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부터 수십만년간 한반도에서 계속 살아 왔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석기문화(中石器文化)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한편 남한(南韓)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新石器) 유적(遺蹟)은 부산(釜山) 영도(影島)의 동삼동(東三洞) 폐총(貝塚), 서울 암사동(岩寺洞) 유적(遺蹟), 그리고 1980년부터 임효재(任孝宰)교수가 발굴하기 시작하여 한국의 신석기문화(新石器文化)를 해외(海外)에 널리 알린 양양군(襄陽郡) 오산리(鰲山里) 유적(遺蹟)입니다. 방사선 탄소연대측정법에 의하면 동삼동(東三洞) 유적(遺蹟)이 4790, 4725 B.C. 암사동이 5175B.C.이고 오산리(鰲山里) 유적(遺蹟)이 5170B.C.의 연대를 보입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은 1946년 미국의 리비(W. Libby)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그 연대의 신빙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에 현생(現生)하는 세콰이어(Sequoia)나무의 나이테 - 이 나무로는 3000년전 까지 나이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와 탄소측정연대를 비교한 결과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후에 개발된, 8000년전까지의 연대가 확인되는 브리슬콘 솔나무(Bristle cone pine)의 나이테에 의한 교정법에 의하여 방사성탄소연대 4750B.C.가 나이테 측정에서는 5350B.C.로 나타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이 600년 정도 적게 나옴을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교정법은 4750B.C.까지가 측정가능상한(測定可能上限)이지만 이러한 계산(計算)으로 미루어보면 서기전 5000년 정도에는 적어도 7~800년의 오차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오산리(鰲山里)의 연대가 5170B.C.라는 것은 그 실지연대가 6000B.C.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임효재(任孝宰)교수는 한국(韓國)의 신석기(新石器) 개시연대가 서기전 6000년까지 올라간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와 중석기시대(中石器時代)는 실지연대상 거의 연결됩니다.

한편 중국(中國)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유적(新石器遺蹟)인 배이강(裴李岡)유적의 연대는 7350B.C., 5900B.C.인데 중국학자들은 7350B.C.라는 연대는 불가신(不可信)이라 하고 5900B.C.만을 취(取)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서기전 6000년대(代)의 문화(文化)가 됩니다. 일본(日本)에서는 토기(土器)가 출토되는 가장 오래된 연대가 10700B.C., 10400B.C.인데 이것은 북구주(北九州) 나가사키(長崎)부근의 후꾸이(福井) 동굴유적에서 얻은 연대(年代)입니다. 처음에는 이 연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연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토기를 만든 문화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석기문화(新石器文化)의 시작연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구석기를 전공하는 분들에게는 중석기문화(中石器文化)의 확인이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신석기를 전공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오래된 신석기유적(新石器遺蹟)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의 첫머리에 오는 덧무늬, 아가리무늬, 지(之)자무늬퇴기의 문제에 언급해 볼까 합니다. 종래에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의 토기하면 빗살무늬토기 하나로 대표(代表)되었지만 동삼동(東三洞) 오산리(鰲山里)의 발굴 결과, 빗살무늬토기 보다 오래된 토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선줄문토기(先櫛文土器)가 덧띠를 도린 덧무늬토기입니다. 그리고 아가리에만

시문을 한 아가리무늬토기도 동삼동(東三洞), 오산리(鰲山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之)자무늬(roking 무늬)토기는 중국의 베이강(裴李岡)유적, 몽고, 용녕성(遼寧省)일대에도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의주(義州) 미송리(美松里), 통영(統營) 상노대도(上老大島) 바닥층에서 출토되고 있고, 부산대학교(釜山大學校)의 정정원(鄭澄元)교수에 의하면 거제군(巨濟郡) 산달도(山達島)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토기의 분포(分布)가 확대(擴大)된다면 우리나라 안에만 국한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全)아시아를 통하여 한국신석기문화(韓國新石器文化)의 기원 문제를 다루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덧무늬토기도 시베리아의 아무르(Amur)강 상류인 노보페트로브카(Novopetrovka)유적에서 바이칼호(湖)부근의 Ust'Ilim유적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주(滿洲), 시베리아에서 출토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우리나라 것과 직결(直結)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시야(視野)를 넓혀서 아시아 전체를 보고 아시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의 문제입니다.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에 대한 종래 고고학(考古學)에서는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 김해시대(金海時代), 고고학계(考古學界)에서는 천관자(千寬字), 이기백(李基白)선생 같은 분들은 성읍국가시대(城邑國家時代)등의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보면 이 시대는 신라(新羅)로 말하면 사로육촌(斯盧六村)에서 시작되어 내물왕대(內物王代)에 이르는 엄연한 왕국시기(王國時期)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고고학(考古學)과 국사학(國史學)에서 함께 쓸 수 있는 삼국시대(三國時代)의 명분(名分)도 살 수 있는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라는 이름을 제창(提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時代)의 고고학(考古學) 문화(文化)에 대해서는 분명(分明)치 않은 점(點)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고고학이 근래 낙동강(洛東江)지역의 영남대학교(嶺南大學校), 부산대학교(釜山大學校), 동아대학교(東亞大學校) 등의 쟁쟁한 고고학도들의 활동(活動)을 통해 이 시대(時代) 고고학(考古學)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에 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 토기의 문제가 크게 close up 되었습니다. 종래 일본학자들은 김해(金海) 회현동(會峴洞), 양산(梁山)패총등에서 출토되는 덧자리 무늬가 시문된 경질토기(硬質土器), 즉 김해식토기(金海式土器)가 바로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의 토기였고 이것이 300A.D. 경에 이르러 신라토기(新羅土器)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도 이것을 받아들여 “김해식토기(金海式土器) 마이너스 타날문(打捺文) 즉 신라토기(新羅土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병삼(韓炳三) 국립박물관장(國立博物館長)이 경주박물관장시대(慶州博物館長時代)인 일구칠구년(一九七九年)에 처음 발굴(發掘)한 조양동(朝陽洞) 고분(古墳)에서 출토(出土)한 종래(從來) 영남(嶺南) 각지(各地)에서 나타나는 소위 와질토기(瓦質土器)에 대해서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의 최종규(崔鍾圭)학예관, 부산대학교박물관(釜山大學校博物館)의 신경철(申敬澈)선생 두분이 1980년대(代)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학설(學說)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경철(申敬澈)선생은 1980년 『부대사학(釜大史學)』에 「태천문화기(熊川文化期) 기원전(紀元前) 상한설재고(上限設再考)」, 『한국고고학보(韓國考古學報)』에 「부산(釜山) 경남출토(慶南出土) 와질계토기(瓦質系土器)」(1982)등 논문을 발표하여 「일본인들이 말하는 김해토기(金海土器)는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의 토기가 아니고 이 와질토기(瓦質土器)가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의 토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소위 김해토기(金海土器)는 모두 사세기전후(四世紀前後), 삼국고분기토기(三國古墳期土器)가 되고 그들 패총(貝塚)들도 원삼국(原三國)에서 밀려나오는 것입니다. 와질토기(瓦質土器)는 손톱으로 긁으면 굽어지는 연질회도(軟質灰陶)인데, 형태(形態), 태질(胎質) 등 비실용적(非實用的)인 특수토기(特殊土器)입니다.

저는 두분의 새 주장(主張)에 대해 와질토기(瓦質土器)가 시기상(時期上)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왜 무덤에서만 출토하고 생활유적에서는 출토하지 않는가, 또 당시 사람들이 이토록 흡습성이 많은 비실용적토기(非實用的土器)는 생활용기가 아니라 부장품으로 만들어진 특수(特殊)토기였으며, 경질(硬質)의 소위 김해토기(金海土器)이 생활(生活)유적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형세는 저의 주장보다는 신(申), 최씨(崔氏) 설(設)이 우세(優勢)하며 특(特)히 일본(日

本)학계에서는 두 분학설(學說)에 절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이 설(設)에 대해 전적(全的)으로는 승복(承服)할 수 없는 입장(立場)이며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서 발굴한 춘천(春川) 중도(中島)유적에서는 무문토기(無文土器)가 와질토기(瓦質土器)단계를 거치지 않고 김해식토기(金海式土器)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효성여대(曉星女大)의 이은창(李殷昌)교수가 금년(今年) 합천(陝川)댐 수몰지구의 저포리(苧浦里) 주거지를 발굴하였는데, 이(李)교수의 아들이며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考古美術史學科) 대학원(大學院)을 졸업한 이성주(李盛周)군의 이야기로는 와질토기(瓦質土器)가 김해식(金海式) 경질토기(硬質土器)와 한 집자리에서 반출(伴出)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질토기(瓦質土器)의 형식이 와질전(瓦質前), 후기(後期)의 어느 시기(時期)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李)군에 의하면 후기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와질(瓦質), 경질(硬質) 병재(併在)가 물론(勿論) 가능(可能)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狀況)이기 때문에 이 와질토기(瓦質土器)문제의 귀추(歸趨)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는 우리나라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대에서 고고학계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한다면 역사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고학자들은 자기의 설(設)에 고집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삼국시대(三國時代)의 문제입니다. 삼국고고학(三國考古學)에 관해 고고학계(考古學界)의 큰문제 또는 관심(關心)의 하나는 높은 봉토를 가진 고총(高塚)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총(高塚)의 발생(發生)은 막강한 권력(勸力)을 가진 지배자가 나타났다. 또는 명실공히 왕국(王國)이 발생했다는 것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고고학계에서 고분의 발생연대를 밝혀낸다는 것은 역사학계의 큰 관심과 의미(意味)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신라(新羅)와 가야(伽耶)고분의 연대는 무조건 5~6세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분의 개시와 소멸연대는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특히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에서 고분(古墳)의 발생(發生), 변천(變遷)문제가 규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빛을 던져 준 것은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의 한병삼관장(韓炳三館長)이 '79~'82년에 걸쳐 발굴한 경주(慶州) 조양동(朝陽洞) 고분군(古墳群)이었습니다. 경주시내에서 불국사(佛國寺)로 가는 도중, 좌측에 위치한 이 유적을 발굴한 결과 몇 가지 고분형태가 나왔는데, 이들은 목곽(木槨)의 흔적이 보이고, 또 한 무덤에서는 묘광(墓壙)의 발쪽에 토기를 묻었던 별광(別壙)이 있는 형태, 즉 주부곽(主副槨)이 있는 목곽분(木槨墳)이었으며, 부장품(副葬品)에서는 악랑(樂浪)의 영향이 뚜렷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청동기(靑銅器),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를 지나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에 들어가면서 세력있는 자들은 악랑(樂浪)계통의 목곽분(木槨墳)과 부장품을 넣는 별광(別壙)이 있는 무덤을 만들었으며 경주적석목곽분(慶州積石木槨墳)의 조형(祖型)이 되는 것임을 조양동(朝陽洞)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982년에 역시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에서 발굴하였던 경주(慶州) 구정동(九政洞) 고분(古墳)은 낮은 원형구릉 위에 광(壙)을 파서 만든 것이며 이것을 최종규(崔鍾圭)학예관은 자연분구(自然墳丘) 이용단계(利用段階), 즉 자연구릉(自然丘陵)을 이용(利用)해 고총효과(古塚效果)를 내는 단계(段階)이고 그 후에 경주 평지로 내려가서 인공봉사(人工封土)의 적석대과분(積石木槨墳)을 시작하였다고 해석(解釋)하였습니다. 4세기(四世紀)로 드러가면서 낙동강(洛東江) 지방(地方) 일대(一帶)에 주부곽(主副槨) 무덤이 지배계급묘제(支配階級墓制)로 퍼지기 시작한 모양이며 부산대학교(釜山大學校)에서 '80~'81년에 발굴한 동래(東萊) 복천동(福泉洞) 학소대(鶴巢臺) 고분군은 그러한 초기(初期) 무덤의 한 표현(表現)입니다. 이 고분군중 우선(于先) 발표(發表)된 10, 11호(號) 분(墳)은 주(主), 부곽식(副槨式)인데 주곽(主槨)은 구릉(丘陵)위 풍화암반(風化巖盤)을 한 광(壙)에 석축(石築)한 것이지만 부곽(副槨)은 목곽(木槨)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분은 정영화(鄭永和)교수가 발굴한 경산(慶山) 임당동(林堂洞)고분에서도 보입니다. 즉 여기서도 풍화된 암반을 파고 주(主)·부곽(副槨)을 설치하였는데, 부곽(副槨)에는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천막(天幕)같은 나무지붕을 씌웠었던 것이며, 창고지기로 보이는 사람이 죽어서 누어있는 뼈가 발견되었습

니다. 복천동(福泉洞)고분(10, 11호)을 정징원(鄭澄元)교수는 토기형식(土器形式)을 통해 4세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4세기의 것이 확실한 고분들이 이렇게 영남(嶺南) 각지(各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경주 고분군 중 4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것은 황남동(黃南洞) 109호분(號墳)입니다. 또한 백제(百濟)의 것으로는 원주(原州)의 법천리(法泉里)고분이 있는데, 이것은 남경(南京)부근 세기초 동진(東晉)고분(古墳)에서 나온 것 같은 토기(土器)가 출토되어 4세기의 것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 석촌동(石村洞)의 고분군을 발굴한 결과 한강(漢江)유역에 적석총(積石塚)이 출현하기 이전에 3세기 후반~4세기경의 토광목곽분(土塋木槨墳)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백제(百濟)의 묘제변천에 대해서는 석촌동(石村洞)고분군을 직접 발굴한 서울대학교박물관(大學校博物館)의 임영진(林永珍)학예관이 이번 논문집에 글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4세기 고분들에 대해 일본학자들은 반드시 찬성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학자들 중에 한국의 편년을 의식적으로 끌어내리고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設)등을 위해 한국에서의 발굴 결과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도 약간 있겠지만 저는 일본의 고고학계가 의도적으로 고고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학문상(學問上)역지를 부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학계의 우리나라의 고분편년에 대한 견해를 가능한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일본(日本)에서 확립(確立)된 일본의 고분(古墳)이나 토기(土器), 유물(遺物)의 편년 체계(體系)에 입각(立脚)할 때 우리나라 고분의 편년을 전부 그대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경주 109호분의 경우 우리는 4세기로 보는데 일본(日本)에는 5세기로 보아 피차(彼此) 100연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한일(韓日)학계에서 합동으로 연구, 토론하여 이러한 편년상(編年上)이 차이(差異)를 일치(一致)시켜 보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학계는 한국의 고총(古塚)발생연대를 400년, 빨라야 4세기 후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일본 북구주시(北九州市) 입고고박물관(立考古博物館)의 다게스에(武末純一) 한국의 고분발생연대를 3세기 후반으로 올려보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연대를 올려본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일본학계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4세기 고분을 계속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정신문화연구원(精神文化研究院)의 강인구(姜仁求)교수도 나와 계시지만 현재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제 자신도 이제는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姜)교수가 말한 예(例)들이 모두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인가하는 것은 앞으로 학술적으로 더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만 강(姜)교수가 그 연대를 4세기라고 보고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본 고고학계와 토론을 하여 이길 수 있으려면 일본고고학에 대해 더욱 많이 알아야 하고 한국 고고학에 대해서도 누가 보아도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계속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4세기 고분들은 출토토기로 볼 때 신경철(申敬澈), 최종규(崔鍾圭) 씨씨(諸氏)의 학설의 따르더라도 4세기의 것임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 같은 목곽분(木槨墳)의 다음 단계가 석곽분(石槨墳)인데 지난 달에 계명대학교(啓明大學校)의 김종철(金鍾澈)교수가 발굴한 성주(星州) 성산동(星山洞)고분과 동아대학교(東亞大學校)에서 발굴한 봉계리(鳳溪里) 고분군에서는 석벽(石壁)안 양쪽에 나무 기둥자리가 보입니다. 이것은 석곽(石槨)내부에 목곽(木槨)이 들어 있던 것을 뜻합니다. 이렇듯 목곽분(木槨墳)에서 석곽분(石槨墳)으로 이행(移行)하는 단계에서 석곽(石槨)내에 목곽(木槨)을 설치(設置)하였던 것 같은데 그것이 혹시(或時) 석벽(石壁)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낙동강(洛東江) 유역의 석곽분(石槨墳) 지대(地帶)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계통의 횡혈식(橫穴式) 석실분(石室墳)이 낙동강(洛東江) 지역으로 전파되는 시기는 상당히 빠르면 늦어도 5세기초에는 아마 백제(百濟)를 통해서 일본(日本) 구주(九州)에 상륙(上陸)합니다.

그런데 경산(慶山) 임당동(林堂洞) 고분군에서는 신라식(新羅式) 고분군 사이에 ㄱ자식(式) 고구려계(高句麗系) 석실분(石室墳) 하나가 있으며, 같은 계통(系統)인 고령(高靈) 고아동(古衙洞)의 벽화고분(壁畵古墳)도 산(山)위에 모여 있는 가야식(伽耶式) 고분군과 떨어져 따로 강(江)가 얕은 지대(地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주(榮州)의 벽화고분(壁畵古墳) 2기도 고구려식(高句麗式) 벽화고분(壁畵古墳)이지만 멀리 신라(新羅)의 북경(北境)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뭔가 북(北)에서 내려오는 고구려계(高句麗系) 주민의 배경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신라(新羅)의 묘제(墓制)는 이와같이 변천해 왔던 것입니다.

경주(慶州)고분의 편년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며, 그 편년에는 신라토기(新羅土器) 편년이 기준(基準)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라토기(新羅土器)연구에 큰 관심(關心)을 가져왔으며 신라토기(新羅土器)는 제가 다시 태어나도 계속해 보고 싶은 연구대상입니다. 제가 1957년 미국에서 신라토기(新羅土器)로 학위논문을 썼지만 그것을 꼭 개정, 증보한다 하면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너무 바빴던 탓도 있지만, 그 동안 신라토기(新羅土器)가 너무 많이 출토되고 각 대학박물관 창고에 분산(分散)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의 힘만으로는 연구하기 어렵게 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라토기(新羅土器)연구는 여러 학자들의 공동연구(共同研究)과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라고분편년(新羅古墳編年)은 신라토기(新羅土器)의 편년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라고분의 편년확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신라토기(新羅土器)를 전(前), 후기(後期)로 이분(二分)하는 대략적인 편년(編年)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以上)의 세부적(細部的) 단대편년(斷大編年)은 아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확실한 절대연대를 가진 유물이 없어 단지 형식분류(形式分類)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전(大田) 한남대학(韓南大學)의 최병현(崔秉鉉)교수가 1981년에 신라고분편년(新羅古墳編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종래에는 고고학계에서 다곽묘(多槨墓)가 단곽묘(單槨墓)보다 앞선 것이라고 보아 왔으나, 최(崔)교수는 논문에서 단곽(單槨), 다곽(多槨)의 차이(差異)는 신분의 차이에 의한 것이지 연대(年代)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연대(年代)문제는 주(主)·부곽(副槨)의 배치상태에 반영(反映)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주곽(主槨)과 부곽(副槨)이 세로로 붙어 있는 창(昌)자형(形)(세로 1자형)이 앞선 단계이며, 다음 단계가 명(明)자형(形)(竝列形)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8호분(號墳)과 같은 큰 쌍분(雙墳)형태는 신분상 최상급의 사람이 묻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설(設)이 세부적으로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해방 후 우리학계에서 신라고분편년(新羅古墳編年)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고고학계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과학과의 협동연구의 확대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考古美術史學科)는 부끄러울 정도로 시설이 빈약합니다. 이것은 모두 제 노력이 부족한 탓인데, 떠나는 마당에 동료교수와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한편 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 공과대학장(工科大學長), 수원공업대학장(水原工業大學長)을 역임(歷任)한 윤동석(尹東錫) 박사가 한국 초기철기(初期鐵器)를 금속학적(金屬學的)으로 분석하여 여러 가지 기술사적(技術史的)인 결과(結果)를 밝히고 있는데 이 연구가 우리고고학계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研究)에 바탕을 둔 학설이나 견해(見解)야말로 국내외 학계(國內外學界)에 대해서 가장 신빙성있는 성과(成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석(岩石)분석에서도 숭실대학교박물관(崇實大學校博物館)의 최은주(崔恩珠)연구원이 한국 곡옥(曲玉)을 성분분석(成分分析)하여, 스트론튬(Sr)과 지르코늄(Zr)이 일본 경옥(硬玉)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옥(硬玉), 곡옥(曲玉)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 곡옥(曲玉)의 비취가 한국산(韓國產)이라는 것을 밝혀 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학적 분석없이 단순히 애국심만으로 우리의 것임을 주장해서는 학술적(學術的)으로 아무 설득력(說得力)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기의 태토(胎土)에 대해서는 경희대학교(慶熙大學校) 황룡혼(黃龍渾)교수의 지도하에 김양옥씨(金陽玉氏)가 원삼국토기(原三國土器) 태토(胎土)를

분석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대학원(考古美術史學科大學院)을 졸업한 이성주(李盛周)군은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 토기(土器)의 태토(胎土)를 분석하여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의 토기(土器)생산 중심지(中心地)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 이러한 조사(調查)를 신라토기(新羅土器)에까지 적용(適用), 신라시대(新羅時代)의 토기생산중심지(土器生産中心地)들을 밝혀 내게 된다면 신라시대(新羅時代)의 생산(生産) 경제발전(經濟發展), 정치(政治)등 여러 가지 중요문제에 대한 귀중(貴重)한 정보(情報)를 제공(提供)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고학에서 자연과 학과의 협력을 앞으로 더욱 증진(增進), 확대(擴大)되는 것이 우리 고고학(考古學)발전에 절대 필요(必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국 고고학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歷史), 문화(文化)는 아시아, 중국, 만주, 시베리아, 일본과 동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민족주의(民族主義)와 국수주의(國粹主義)가 민족(民族)이나 국가(國家)의 발전(發展), 외세침략(外勢侵略)의 방어(防禦)를 위해 때로 필요(必要)할 때가 있으나 그것이 학문연구(學問研究)와 직결(直結)되어서 안됩니다. 학문과 국수주의가 결합한다면 일반국민에게는 애국자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긴 눈으로 보아 결국은 나라에 해(害)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眞理)가 감정(感情)에 의해서 왜곡(歪曲)된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탄로(綻露)되고 비판(批判)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안한 사람과의 차이는 논문 작성 능력의 유무(有無)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논문을 쓸 줄 안다는 것은 많은 자료를 냉철하게 다루어 그 자료들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보편타당(普遍妥當)한 논리(論理)로 도출(導出)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學問)의 참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슨 외계(外界)에서 온 생물(生物)이거나 외국인(外國人)이 되어서 학문(學問)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勿論) 한국인(韓國人)으로서 학문(學問)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한국인(韓國人), 한국인(韓國人)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슨 문제(問題)를 다루면 그것은 한국인(韓國人)이 되어서 다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문(學問)의 세계(世界)에 대해서 외부(外部)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必要)도 없고 또 하여서는 학문(學問)의 진전(進展)에 방해(妨害)가 되는 것입니다.

1981년에 전자(電子)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과학자 후쿠(福井)박사는 노벨상을 타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느냐는 기자(記者)들의 질문(質問)에 '자유로운 연구발상(研究發想)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 환경이 그 하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고학자가 "이 유물은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라고 말하면 친일파라고 오해받습니다. 일본학자들은 국제학계에서 자기나라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못한 발언(發言)을 서슴치 않고 합니다. 이것은 실(實)은 자기나라에 대해서 큰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문적 진리와 애국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적어도 고고학적 유물은 한(韓)·중(中)·일(日) 등 현재(現在)의 지형적(地形的) 차원을 넘어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문화(文化)의 상호관계(相互關係), 문화사적(文化史的) 성격(性格)이 체대호 파악(把握)되고 국사(國史)의 연구(研究)가 세계사(世界史), 인류사(人類史)의 연구(研究)로 이어지고 확대(擴大)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일본고고학, 중국고고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1985년에 중국(中國)의 산서성(山西省) 고고연구소(考古研究所)에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편낸 『한국구석기문화연구(韓國舊石器文化研究)』(金元龍, 崔茂藏, 鄭永和 共著)를 번역하여 『조선구석기문화연구(朝鮮舊石器文化研究)-한국구석기문화연구(韓國舊石器文化研究)』라는 책을 간행(刊行)하였으며, 부록으로 제가 쓴 『한국고고학개설(韓國考古學概說)』의 일부도 실려 있습니다. 그 중국본토(中國本土)에서 우리나라의 책을 가져다가 번역해서 공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여기 사회(司會)를 보는 한양대학교(漢陽大學校)의 김병모(金秉模)교수도 박사학위는 Oxford에서 중국 고고학으로 취득하였으나 귀국후(歸國後)로는 한국고고학(韓國考古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논문집에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의 안승모(安承模)학예관이 중국고고학에 대한 논문을 쓴 것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언제라도 중국과의 학문교류가 이루어질 터인데 그것을 감당할 학자가 없습니다. 일본 고고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본고고학에 대한 지식은 피상적인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화(文化)가 일본(日本)에 건너갔다고 하여도 일본학자(日本學者)들은 때로 코웃음치고 있습니다. 일본(日本)유물들을 잘 알아야 그 속에 있는 우리 유물(遺物), 우리 요소(要素)를 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일본고고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나와서 그런 문제들을 자신(自身)있고 설득력(說得力)있게 주장(主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나라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중국 고고학을 전공해서는 먹고살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나라가 해결해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정신문화연구원(精神文化研究員)에 더욱 많은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세종대왕(世宗大王)이 집현전학사(集賢殿學士)들에게 독서(讀書)하고 공부(工夫)하는 것이 곧 애국(愛國)이라고 하였습니다. 고고학(考古學)하는 것은 비생산적(非生產的)인 것 같지만 문화(文化)의 힘이야말로 나라의 힘입니다. 유능(有能)한 젊은 학도(學徒)들이 대학(大學)을 나와서 계속 연구(研究)할 수 있는 환경을 나라가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연구의 분업화와 학문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박물관(博物館)외에는 연구기관이 없고 사람이 모자라서 나 자신(自身)만하더라도 석기시대(石器時代)에서 조선시대(朝鮮時代)까지 모두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고고학 내에서도 보다 세분화(細分化)된 특정분야만을 일생동안 연구할 수 있는 풍토(風土)가 조성(造成)되어야 합니다. 가령 일본의 경우 - 자꾸 일본의 예(例)만 들어 죄송하지만 - 특성시대의 토기만을 연구하는 학자가 여럿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새 발견이나 발굴 결과에 대해서 즉시 깊이 있는 논문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고학 문제에 대해서 해방 이후 한·일 양국의 연구논문들의 질(質)과 수준(水準)을 비교해 볼 때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금(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고학적 발굴이나 발견(發見)자료가 많은데 비(比)해 그것을 치밀하고 심도있게 마무리짓고 연구해나갈 인력(人力)이 부족(不足)한 것입니다. 지금 국토건설에 따른 경제발굴(經濟發掘)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발굴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기획발굴(企劃發掘)을 늘리고 발굴 결과(結果)에 대해서 책임(責任)있는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젊은 고고학도들이 더 많아지고 나라에서 그들의 연구를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고고학이 세계수준(世界水準)의 고고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自身)은 아무 한 것 없이 40년(年)이 흘렀습니다. 저의 퇴임(退任)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이 와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